


| | | |
|---|---|---|
|  | <h1>보도자료</h1> <h2>1.30(토) 조간부터 보도 가능</h2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 |
|---|---|---|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작성부서 |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제협력팀 | | | |
| 책임자 | 손성은 팀장 (2156-9660) | 담당자 | 김명규 사무관 (2156-9648) | |
| 배포일 | 2016. 1. 29.(금) | 배포부서 | 대변인실(2156-9543~48) | 총 4매 |

제 목 : 「2015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」 발간

- ◇ 금융위원회는 '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' 제10조 제2항에 따라 「2015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」(수행기관 : 금융연구원, 15.10~12)에 대해 발표
- * (근거법률)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: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금융전문인력 현황 조사 주요 내용

- ① (취업자 수) '15.9월말 기준, 금융인력 조사대상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금융전문인력은 285,029명으로서 전년대비 1,189명 감소
- 업권별로는 자산운용·신탁사, 상호저축은행, 여신전문업권에서는 증가하였으나, 은행, 보험사*, 증권·선물사, 신탁업에서는 감소

※ 금융전문인력 조사 개요

- ◇ (대상) 국내 영업종인 7개 금융업권* 금융회사 종사자
(비상근 임원, 사외이사 및 보험설계사, 카드모집인 등은 제외)
* 은행, 증권/선물, 자산운용, 보험, 여신전문, 상호저축, 신탁
- ◇ (조사 기준일) 2015년 9월말
- ◇ (응답기관) 총 1,339개의 금융기관 중 1,138개 기관이 참여

* 특히 보험업에서 1,502명, 증권·선물업에서는 1,684명이 감소하여, 동 업권에서의 인력구조 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남

⇒ 2년 연속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하락('15년 △ 0.19%p)

- ② (추가 채용) 324개사가 1년간 총 4,264명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응답

- '14년 조사(5,056명 채용계획)에 비해서는 채용계획*인원이 감소
* 실제 채용은 거시경제여건, 구조조정, 노동시장 여건 등에 따라 계획과 다를 수 있음

- ③ (기술금융) 조사대상 회사의 기술금융 인력은 497명, 기술 외부 전문 기술평가회사*의 전담인력 954명 등 1,451명으로 파악('14년대비 474명 증가)
* 기술보증기금, 한국기업데이터, 나이스평가정보 등

⇒ 금융회사들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,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

2. 고용 등의 장기 추세 분석

- * '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(매년 실시)' 최초로 10년간의 고용 등 추세 분석

- ① (일자리 창출 기여도) 금융·보험업의 일자리 기여도가 2년 연속 하락

- '14년 및 '15년중 전산업의 취업자수는 각각 2.1% 및 1.1% 증가하였으나, 금융·보험업 취업자수는 각각 3.1% 및 5.9%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

<금융·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>

(단위 : %, %p)

| 구분 | 2005 | 2006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(1~3/4)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금융/보험 | 0.04 | 0.18 | 0.09 | 0.06 | -0.23 | 0.18 | 0.16 | -0.02 | 0.09 | -0.11 | -0.19 |
| 전산업 | 1.33 | 1.29 | 1.22 | 0.61 | -0.30 | 1.37 | 1.74 | 1.80 | 1.56 | 2.13 | 1.05 |

※ 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취업자수 통계

- ② (고용 추세) '10~'14년중 금융·보험분야의 연평균 입직자(상용근로자기준 8,743명)는 '02~'07년에 비해 28.9% 증가한 반면, '10~'14년중 이직자(8,607명)는 '02~'07년에 비해 28.5% 증가(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)

- 금융·보험분야의 이직률*은 상용직의 경우 '10~'14년 평균 2.0%로서 전산업의 이직률 2.4%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, 금융·보험업 일자리는 전산업 일자리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됨

* 이직률 = 당월이직자수/전월말근로자수×100

③ (수익과 고용 관계) 주요 금융업권은 지난 10년간 수익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, 고용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

- 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·순이자마진(NIM) 등 주요 수익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큰 폭으로 증가
- 보험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확대된 반면, 운용자산이익율·경과손해를 등이 악화되었으나, 고용은 증가세를 유지
-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, 금융권에서는 최근 인력구조조정* 압력이 점차 커짐

* 수익성 변화시 기업들은 일차적으로는 internal margin(예: 근로시간 연장 또는 단축 등)으로 대응하고 이후에 external margin(예: 채용 또는 해고)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고용간에는 일반적으로 시차(time-lag)가 존재
특히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경우에는 해고 등에 수반된 고용조정비용(labor adjustment cost)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수익성 변화와 고용조정간 시차가 상당히 긴 경향이 있음

<주요 금융업권의 수익성 지표와 임직원수 추이>

(단위 : 백만원, %, 명)

| 구분 | 2005 | 2008 | 2010 | 2012 | 2014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은행 순이자마진(NIM) | 2.81 | 2.30 | 2.32 | 2.10 | 1.79 |
| 임직원 | 89,011 | 108,283 | 110,529 | 113,294 | 118,703 |
| 생보사 운용자산이익률 | 6.93 | 5.93 | 5.43 | 4.76 | 4.51 |
| 임직원 | 25,412 | 27,623 | 26,681 | 28,615 | 28,111 |
| 손보사 운용자산이익률 | 5.85 | 5.50 | 5.04 | 4.51 | 3.97 |
| 임직원 | 22,051 | 27,415 | 28,838 | 31,521 | 33,047 |

※ 자료 : 금융감독원

3. 정책적 시사점

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여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

- 저금리·저성장의 경제구조하에서 금융권이 전통적인 건전성 위주의 수익 창출 방식에 안주할 경우 수익기반이 취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증가
- 전문성·효율성이 중시되는 금융산업이 보다 혁신적인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으로의 보수체계 개편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

-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제고되면 우수한 청년인력이 금융권에 유입되고, 유입된 금융전문인력을 통해 금융산업도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② 기술금융 및 금융보안 등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문에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 교육기관 등이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·내실화할 수 있도록 점검·지원할 필요

<참고> 2015년 금융인력 주요통계 현황

| 구분 | 주요 현황 |
|-------------|---|
| 1 고용형태 | 정규직 88.1% 비정규직 11.9% (14년 비정규직 11.4%) |
| 2 직무 | 영업마케팅 55.8% 경영관리 13.9% 영업지원 5.5% 자산관리 3.9% 순 |
| 3 성별 | 남성 54.0% 여성 46.0% (14년 여성 46.2%) |
| 4 연령 | 30대 38.2% 40대 31.6% 20대 16.3% 50대 이상 13.0% |
| 5 급여 | 2,500~5,000만원 28.8% 5,000~7,500만원 미만 24.4% 7,500만원~1억 미만 19.8% 1억~1.5억 미만 14.8% 1.5억원 이상 1.8% |
| 6 총 근무 | 5년 미만 37.4% 20년 이상 23.7% 5~10년미만 18.9% 10~15년미만 10.0% 등 |
| 7 학력 | 대졸 59.6% 고졸 21.7% 전문대졸 12.4% 대학원졸 6.3% |
| 대학원전공 | MBA 17.9% 경영경제 46.3% 인문사회 7.9% 공학 6.1% 전산 5.3% |
| 8 기술금융인력 | 1,451명 (기술신용평가 전담 954명, 금융인력 조사 결과 497명) |
| 9 금융보안인력 | 1,851명 (전체 금융인력의 0.6%) - 정규직 1,689명, 비정규직 162명 |
| 10 시간제 | 2,216명 (남성 10.1% 여성 89.9%) - '14년 1,506명(여성 87.1%) |
| 11 신규채용 인원 | 23,047명(신규 14,095명, 경력 8,952명) * '14년~'15.8월말 기준 조사결과 ※'14년 23,266명(신규 14,158, 경력 9,108) |
| 12 이·퇴직자 | 23,536명(자발적 15,341명, 비자발적 7,650명, 정년퇴직 333명, 기타 212명) |
| 13 신규채용계획 | 4,264명(응답률 : 24.2%) * 이·퇴직 전망 3,530명 |
| 14 일자리 창출기여 | △0.19%p(788천명) ※'14년 △0.11%p(837천명), *전산업 기여도 1.05% 증가 |

※ <별첨> 2015년 금융인력 기초통계분석 및 수급전망
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려드립니다